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1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不二(65.2x53) • 이가온

* 이가온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11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인간과 자연 - ②
꽃은 흙에서 핀다	9	발우공양
일요특강	12	상호존중과 배려의 삶 ①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19	감사하기
옛날의 금잔디	22	옛날의 노래를 부르자
아름다운 마무리	26	11월 결연 대상자 - 송호영(가명)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28	목욕탕
향기나는 우체통	31	나는 맑고 향기로운가?
좋은글 나눔터	35	어느 스님께 드리는 편지
운명보다 강한 열정	40	청소의 힘 - 마스다 미쓰히로
따뜻한 이야기	42	깜짝 선물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공양	51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261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인간과 자연 - ②

글·법 정(法 頂)

4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자기가 만
들어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내리
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
져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
든 짐승을 부려라.”

여기에서 말한 ‘땅’은 ‘자연’으로 대
체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정복의
사상에 기반을 둔 유럽의 역사가 끝
없는 정복과 착취와 함과 진압의 역
사라는 사실은 날날이 증명할 필요
도 없다.

그러나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
니다. 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자연을 정
복할 수 있단 말인가. 휘몰아치는 태

풍과 폭우와 논바닥이 갈라지고 저
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가뭄과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면서 폭발하는 화
산과 지진을 사람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흔히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악의
등정에서 ‘무슨 봉을 정복 운운하는
신문기사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뉴스
를 듣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잠꼬대 같은 소리다. 그 산
봉우리를 참으로 정복했다면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 시간도 못 되어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오고 말지 않는가.

매스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
울 만큼 배운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번번이 이처럼 무식한 표현을 서슴없
이 쓰고 있다. 역시 〈창세기〉의 후에

들인 모양이다.

목숨을 걸고 기어오르는 그 의지
력과 용기가 가상해서 산이 잠시 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정복이라고 하
니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소리인
가.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대부
분은 산의 실체를 모르고 방심하거
나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친 과
욕과 자만에서 오는 결과다. 금세기
전반기를 살다가 간 영국의 등산가
이며 저술가인 F. S. 스마이드는 《산
의 정기精氣》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있
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정복되어
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들의 한 부분이며 만물에 이어진 아
름다움과 장엄이다. 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배운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자연과의 친화를 실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말
도 하고 있다.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등산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날의

계획 중 한 가닥 황금의 실일 뿐이
다. 마치 군인들이 일찍이 다른 군인
들이 점령한 도시를 짓밟듯이 정상
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만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방문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신은 비단 등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
생사에도 해당될 것이다.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
생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최대한
으로 살아가는 데에 삶의 의미를 두
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은 산마루가 아
니고 산마루에 도달하는 그 일(과정)
이다. 스마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관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것. 등
산의 기쁨은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
음 올라가면서, 차분히 산봉우리들
을 바라보고, 산의 향기를 맡고, 산
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있다.

그리고 정상에서의 침묵은 가장
느긋하고 거룩한 휴식임을 알아야
한다. 갖은 고생과 시련을 이겨내면

서 이 풍진 세상을 다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저녁노을 앞에서 할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저 묵묵히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자취를 되돌아 볼 뿐이지.

5

그럼, 자연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삶의 터전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아득한 그 옛적부터 삶을 이루어 온 땅, 우리들의 육친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치와 살과 땀이 녹아든 흙, 수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쉬고 있는 성스러운 대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땅이 돈벌이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토 확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땅은 그 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꾸고 지킬 뿐이다.

1855년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현재의 워싱턴 주에 해당하는 땅을, 그곳에 살던 인디언 스와피

족의 추장 시아틀에게 미국 정부에 팔라고 강요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아틀 추장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늘을, 땅의 체온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공기의 신선함과 물의 거품조차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은 나의 백성들에게는 신성한 것입니다. 저 빛나는 솔잎이며 모래톱이 있는 해변이며 어둡침침한 숲 속의 안개며 노래하는 곤충들이 모두 내 백성들의 기억과 경험 안에서 성스럽습니다.

백인들이 우리의 사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조각의 땅은 그 곁에 있는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중에 와서 그 땅으로부터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형제가 아니라 적입니다.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그들은 전진을 계속합니다. 게걸스러운 그들의 식욕으로 그 땅을 먹고 나면 그 뒤에는 오로지 사막만이 남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한다면 하나의 조건을 내놓겠습니다. 짐승들이 없는 곳에서 인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숲 속의 모든 짐승들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커다란 정신적인 외로움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인간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은 여러분과 같은 신입니다. 그의 연민은 백인과 인디언들에게 한결같습니다. 이 땅은 그분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해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백인들 또한 소멸될 것입니다. 당신의 잡자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 자신의 쓰레기 안에서 숨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들소들이 모두 살육되고 야생마들이 길들여지고 숲 속의 신성한 구석구석들이 인간들의 땀새로 손상된다면, 그것은 삶의 종말이며 죽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인디언들이 이 땅으로부터 소멸되고 오직 광야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구름의 그림자만 남을 때, 그때에도 이 해변과 숲들은 내 백성들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살던 땅을 넘겨준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보살피듯 보살피면서 그것에 대한 기억을 당신

마음속에 간직하시오,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한 후 당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마음으로써 당신의 자녀를 위해 보호하고 사랑하시오.

인디언 추장의 이 편지는 130여 년 전 그 시절의 미국 대통령만이 아니라, 자연을 말할 수 없이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보내온 묵시록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6

인간의 생활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자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행위는 다시 결과로써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현상이 인과의 법칙이고 우주 질서다. 이제 우리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인간의 철저한 내적 변화만이 오늘의 파국을 극복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의 맹목적이고 타성적인 생활습관에 일대 변화가 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생활방식을 정상적인 것

으로 착각하고 있음이다.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현재의 생활방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극히 근래에 이루어진 일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그것은 정복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동반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옛말에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오늘의 문명은 자연이 낳은 이자만으로는 모자라 자연이 쌓아둔 자본까지 값아먹고 있는 비정한 실정이다. 만신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오늘날 자연의 신음 소리는, 곧 우리들 자신의 질병이며 신음 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

건은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의 일부이며,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화학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지나친 소비는 반드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을 가져온다.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가전제품 한 가지, 가구 한 개를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매연과 산업 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적게 가질수록 그것은 귀하게 여겨진다.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인간의 영역은 시든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선인들이 자연과 어떤 교감을 이루며 살았는지, 한편의 시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16세기 송순宋純이 읊었다.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 지어 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땅 빈 층만 중에서

발우공양

글 • 김기철(도예가)

우리가 몸 붙여 살고 있는 지구를 맑고 아름답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발우공양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청도 운문사에서 ‘맑고 향기롭게’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머릿속 깊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어떤 훌륭한 법문보다도 단 한 번의 발우공양 체험을 하고나서야 오늘날까지 감동과 감격으로 변함없이 찬탄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먹을 게 많아 육식껏 먹어대고 살이 썩 죽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그래도 모자라 남은 음식을 내다버리는 일이 일상화돼있는 시대에 그 언제 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궁핍했던 소리를 한다는 것이 한

날 옛날 애깃거리로 들릴진 모르겠지만 곰곰이 그 속을 파고들면 너무나 심각한 현실과 미래가 환히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모든게 풍요롭고 편리해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희희낙락하지만 한치 앞만 내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등신이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는 일하기에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한 결과는 자연의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해서 우리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해놓고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물 한 가지만 두고 봐도 놀라울 만큼 많은 양을 쓰고 있

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샘에서 떠온 물로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걸레를 빨고, 그리고 화초에 물을 주었다. 설령 대야에 많은 물을 퍼 담아 세수를 하면 '이다음에 지옥 가서 그 물 다 마셔야 한다.'고 야단을 맞았다.

그 흔한 Hotel들, 한사람이 욕조에 가득 담은 물을 몸 한번 담그고 버리지 않는가? 그전에 몇 백배 몇 천배의 물을 낭비하고 보니 지하수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먹을 물은 다 사먹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발우공양이야말로 지극히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지구 자원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다. 두 개의 바리때와 한 장의 바리수건으로 밥풀 하나 김치쪽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잡다한 음식, 결코 신선하지 못한 재료로 온갖 재주를 다 피워 차려놓고는 쓰레기로 나가는 양이 더 많은 것이 현

실 아닌가?

결코 건강하지 못한 탁하고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 몸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날마다 자행하는 것이 우리 일반 식생활이라 할 것이다.

신선하게 자란 식물성 먹거리와 담백하게 만든 사찰음식은 그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뒤 입맛이 개운하고 깔끔해서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토끼나 염소, 소까지도 식물 먹고 내놓는 배설물은 그다지 혐오스런 악취가 나지 않는 반면 개 고양이 돼지 닭 따위의 잡식동물의 그것은 지독하게 역겹다.

아마 사람의 그것도 육식을 주로 하는 그것과 채식하는 이의 그것은 완전히 다르리라 믿는다.

좀 비약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엄마 젖을 먹고 싹 아기 똥은 그 빛깔도 황금색이고 결코 역겹지 않은 배릿한 냄새가 젓비린내처럼 사랑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 배설물이라기 보다는 생명 순환의 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비록 세상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내다 버리느라 상을 찡그리고, 환경을 오염시켜가면서 살이 썩 죽겠다고 하소연을 한들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다만 구석구석에 땀 흘려 일하며 소박하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위안을 받게 된다.

언젠가 송광사로 참배하러 가는데 수많은 스님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노스님 젊은 스님 어린스님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넓은 밭에서 배추 무를 뽑고 나르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게 바로 울력기구나!'하고 감격한 일이 있다.

아무리 온갖 오염물질로 시궁창같이 된 강물이라도 한줄기 맑은 물이 쉬지 않고 흘러들 때 그 강은 결코 죽지 않고 정화되는 것처럼 곳곳에서 발우공양과 같은 청정한 일상이 전개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변화돼 나가리라 믿는다.

일요특강 -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유머가 밥이다

이현용 (서울충암초등학교교장)

11월 27일(넷째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우리는 삶의 목적을 '행복 추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없답니다. 왜냐구요? 삶 자체가 바쁘고 고달프기 때문에 실제로는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실체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행복인 것이지요. 행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행' 아닙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즉, 불만이 많은 삶은 불행한 삶인 것이지요. 불만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행복한 삶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와우!'하고 감탄합니다.

상호존중과 배려의 삶 ①

글 • 정두근 (사)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총재

1. 왜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인가?
종교를 떠나 만인의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법정 스님의 인향이 가득한 길상사에서 무소유 정신을 다시한 번 되새기고, 길상화 보살의 공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것은 길상사 마당의 관음상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법정 스님과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 교수와의 관음상 제작에 대한 속 뜻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관음상에서 풍겨 나오는 성모 마리아의 자애로움을 느끼며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결국 하나임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음상 점안식 날 최 교수께서 했다는 인사말,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 무슨

경계가 있는가’라는 말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상호존중과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자 새마을 운동은 동력을 잃었고, 이를 대체할 마땅한 정신문화운동 없이 물신주의가 지배함으로 인해 행복지수는 여전히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한 빈부격차에 따른 극단적 이기주의, 남북 갈등에 이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보수와 진보의 타

협할 줄 모르는 이념대립,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배타적 기리끼리 문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 민생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무능과 이권투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부패 등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처럼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서 정감어린 대화와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겨야 산다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자기최면에 빠져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FTA라는 무한경쟁열차 탑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3세계 빈곤국가의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고통을 돌볼 여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니, 인류공동체니 하는 말들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족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사회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국가 간에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성을 회복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자’는 운동이 바로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입니다.

사람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사상은 불교의 자비(慈悲),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仁),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자마자 지옥도·아귀도·축생도·수라도·인간도·천상도의 여섯 걸음을 걷고, 이 육도(六道)의 윤회에서 벗어난 일곱 번째 걸음에서 말씀하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 천상천하유아독존)’ 역시 나, 즉 유아독존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니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운동은 이타적 유전자를 부활시키자는 사랑

복원운동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이기적 탐욕이 벗어낸 갈등과 분열, 전쟁을 극복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호존중과 배려운동 시작

제가 국민정신문화운동을 한다니까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군(軍)에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3년 육군 제32보병사단장으로 취임한 저는 불과 한 달 만에 오래 전부터 은밀하게 있어 왔던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구타사건 3건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7명을 구속하고, 10여 명을 징계조치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이 일차 피해자이지만, 이로 인해 처벌받는 선임병과 폭력적 병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변 병사들, 지휘책임으로 문책

받는 초급지휘자,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장병 부모 등 모두가 피해자 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인 병영문화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용한 조선 청년들을 폭력적으로 관리한 데서 비롯된 악습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광복군에서는 계급과 지위 여하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음에도 우리 군대에는 광복군의 전통이 아닌 일제 잔재가 바이러스처럼 침투했던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민주적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불합리하거나 강압적인 통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육설과 폭력으로 자존심을 침해당하면 감정조절을 못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저지릅니다. 반면에 지적수준이 높고 창의성이 뛰어나며, 자신이 공감하는 일에는 열정을 쏟아 책임을 완수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극대화시킬 지휘관들의 리더십과 선진병영문화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변화무쌍한 전장상황에 첨단 과학화된 장비로 대응해야 하니 전투원 개개인의 상황판단과 조건반사적인 조치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병사들이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하도록 길들여져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면 현대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상하 동료 간에 믿음이 있어야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유로운 소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운동이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운동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가치를 두고,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과 경청하고 칭찬하기, 정감어린 인사말하기에 공중도덕 지키기와 나누고 봉사하기를 실천 5대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상처는 대부분 말에서 비롯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언어체계가 극존칭어와 존칭어, 예사말과 낮춤말 등으로 세분화된 사회에서는 언어 사용을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상대를 업신여기는 말투를 예사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장자이거나 상급자라 하여 아랫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막말을 듣는 사람의 상한 기분과 반발심은 표정에 나타나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상처가 쌓여 이성을 잃으면 극단적 저항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로써 쌍방의 인간관계는 파탄을 빚게 됩니다.

감정 절제를 위한 명약은 존댓말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존댓말 또는 존중어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상존배 운동의 첫 번째 실천과제

입니다.

둘째, 정감어린 인사말 나누기입니다.

인사는 예절의 기본이며 인간관계를 맺는 첫인상입니다. 고대 중국의 공수배례는 그 형식을 떠나 인사예절이 왜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손을 씻어 독이 없음을 보여주고,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 무기를 숨기지 않았음을 확인시킨 다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공경의 예를 갖추는 인사가 공수배례입니다. 상대를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공수배례에 담긴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만남을 반듯한 인사로 시작하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정감 있는 인사말과 사랑이 담긴 인사말에 미움과 경계가 있을리 없습니다. 만남의 순간에는 환영과 밝음을, 일을 할 때는 위로와 격려를, 실수했을 때는 사과와 겸손을, 은혜

를 입었을 때는 감사를 인사말에 담을 때 모든 만남은 긍정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자발적 협조와 도움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군대 등 각 조직에서 인사예절의 실천 수준은 조직구성원의 인간관계를 결정짓기에 조직의 승패와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셋째, 경청하고 칭찬하기입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5년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던 초한전에서 한나라 유방이 초패왕 항우를 물리친 힘은 경청이었습니다. 힘이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이 세상을 덮을만한 항우는 전투에서 승리한 날이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 자신의 전략과 용맹성을 과시하는 이 말 앞에서 참모들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방은 부하들에게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자신을 낮추어 부하들의

지혜를 경청하려는 유방의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에 유방의 참모들은 마음껏 지략과 재주를 발휘했고, 이를 부러워한 상당수의 항우 참모들이 유방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리한 짐승은 나무를 택해서 보금자리를 짓고, 지혜로운 신하는 군주를 택해 섬긴다.’는 말처럼 한때 항우와 가까웠던 선견지명 있는 책사 장량과 항우의 개국공신 한신 등도 유방을 찾아왔습니다. 유방이 보여준 경청의 리더십은 인재를 끌어 모으는 블랙홀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졌던 항우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청에 포상까지 따르면 능력이 극대화되는데 그 포상은 일단 칭찬입니다. 가정에서도 칭찬을 생활화하면 가족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고 회사를 비롯한 조직에서도 칭찬은 성공이 필수 조건입니다.

넷째, 공중도덕 지키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규범을 제시한 성현들

의 윤리를 실천적으로 재창조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양의 동서남북 성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질게 살라는 흥인지문, 의로움을 돈독히 하라는 돈의문, 예를 숭상하라는 숭례문, 지식과 지혜를 널리 펼치라는 홍지문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의예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도덕적 규범이 오늘날의 공중도덕이라 하겠습니다.

공중도덕을 강력한 법체제로 지켜 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거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껌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관광객이 껌을 씹다 아무렇게나 뱉으면 벌금이 800싱가포르 달러(약 68만원)이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1,000싱가포르 달러(약 85만원)를 물어야합니다. 흉악범이 아닌 공중도덕 위반자에게도 벌금과 함께 태형이라는 전근대적 형벌을 가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공중도덕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가정

에서나 학교에서 정작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항목인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입시위주의 교육 탓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공중도덕의 실천교육 강화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나누고 봉사하기입니다. 충북 음성 꽃동네는 오갈 데 없는 불우이웃 4천여 명이 수도자와 봉사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꽃동네는 1976년 오웅진 신부가 최귀동 할아버지를 만나며 시작되었습니다. 귀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 할아버지는 부잣집 막내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고, 결혼도 하였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 북해도 탄광으로 끌려갔다가 거의 폐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고향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내와 가족의 생사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최 할아버지는 거지 생

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할아버지는 돈이나 더운 밥은 절대 받지 않았으며, 먹고 남긴 밥만을 얻어다 병든 거지들은 먼저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오웅진 신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허름한 움막을 마련해 최 할아버지와 그가 보살피는 걸인들을 모시면서 꽃동네가 만들어졌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곧 섬김이고, 이의 마지막 실천과제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나눔은 타인공정뿐 아니라 자기공정의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부정적 자아와 긍정적 자아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공정은 타인공정과 늘 하나로 작용하고 나눔과 봉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한 모두의 행복 실현이 나눔과 봉사의 궁극적 가치입니다.(다음호에 계속)

* 2016년 9월 25일 일요특강 정리

감사하기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서 미소 지어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유로운 시간들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무엇이 감사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5가지를 적어보세요.

- _____
- _____
- _____
- _____

대부분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책을 선물 받았을 때, 그 책이 읽고 싶었던 책이라면 더욱 감사하는 느낌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의 어떤 ‘바람’이 충족되어 감사한지를 말하는 것이 공감대화의 감사하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시간에 맞추어 가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차를 태워주었다면, ‘차를 태워주셔서 약속시간

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시간에 늦을까봐 불안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되어 편안합니다.' 라고 감사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더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람'이 충족되어 올라오는 느낌을 서로 나누어 함께 행복해지게 합니다. 상대가 한 행동을 말하고, 그 행동으로 충족된 나의 바람을 말하고, 그래서 생기는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폭력대화' 책에서 저자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자신의 강의가 훌륭했다고 하는 수강생에게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묻습니다. 수강생은 자신이 적은 것을 가리키며,

'이 두 가지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마셜은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열여덟 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어요. 아들과 좀 더 다정하게 말하

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통해 그 방향을 알게 되어 희망도 생기고, 마음도 놓여요.' 라고 수강생은 답합니다. 감사하는 이유와 그래서 생기는 느낌을 정확히 '희망적이고, 마음 놓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상대의 마음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상대의 느낌과 함께하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받으니 기쁘네요.' 라고 받아주시면 기쁨은 무한으로 커질 것입니다.

공감대화에서 '비교, 평가,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가에는 칭찬도 들어갑니다. '강의가 훌륭했다, 네 행동이 멋졌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 등의 칭찬도 평가입니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타인의 변화를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것은 결국은 칭찬도 '일반적인 평가의 말'로 받

아들이게 되는 타성에 젖게 할 수 있습니다.

EBS 프로그램에서 유치원 어린이에게 매일 아침 우유를 한 잔 주면서 실험한 것에 따르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우유'라고 표현하면서 자유롭게 먹도록 한 반과 '우유를 마시면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우리 반은 우유를 아주 잘 마시는 반이지?' 라고 칭찬으로 먹도록 한 반의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으로 먹도록 한 반이 훨씬 잘 마시고, 자유롭게 먹도록 한 반은 마시기를 미루거나, 안 마시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으로 먹도록 한 반은 매일 칭찬의 강도를 높여가도 마시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자유롭게 마시도록 한 반은 우유 한 잔을 기꺼이 마시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칭찬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고자 하는 공감대화의 방법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나의 느낌을 말하고, 상대의 느낌도 짐작해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노력해서 성적이 올랐다면,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잘했구나. 네가 열심히 하더니 지난번보다 나은 성적을 받은 것을 보니 기쁘다. 너도 뿌듯하지?' 라고 하면 칭찬과 함께 느낌을 표현한 대화가 됩니다.

누구나 아침에 눈을 뜨지 않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요? 눈을 뜨지 않는 날 이후는 모르겠지만, 눈을 뜨는 매일은 잠을 통해 환생한다고 혹은 새로운 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남아있는 환생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날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미소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나는 모두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소 지어봅니다.

옛날의 노래를 부르자

글 • 윤언덕(작가)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주변에는 더 가난한 이웃들이 있었다. 앞집에 '박 씨 집'이라고 불리던, 노동하며 생계를 꾸리던 부부 슬하에 1남 5녀를 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 집 큰아들과 나의 장형은 동갑이었는데, 아버님께서 형이 국립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그 집 아들 앞에서 '대학생티를 내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다. 그해가 1974년이였다.

다 같이 가난한 집안끼리 누구 집 아들은 대학생이고 누구 집 아들은 공장에 다니던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로부터 6년 후 나도 어렵사리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이후 7년이 지나자 군에 가서 제대하고 복학 후 졸업하고 취

직하여 사회로 나가게 되었다.

대기업 신입사원 시절, 패기만만하게 시작했던 직장생활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에서의 3년간의 하숙 생활은 피로감을 가중하고 향수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날은 무슨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상사와 고객에게 곤죽이 되도록 시달림을 당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던 날이었다. 그것을 이유로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마시다 보니 영등포 시장 근처의 싸구려 선술집까지 가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술집은 흔하디 말하는 색주자였다. 맥주를 두어 병 시켜서 마시는데 예상하지 않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저

급한 작부 풍의, 술집 아가씨 두 명이 옆에 앉아서 내심 놀라게 되었다. 그러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취중이지만 더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네의 여자아이에서 처녀가 되었다지만 분명히 얼굴 생김이 어린 시절 이웃 '박 씨 집'의 셋째 딸이었다. 가름한 얼굴에 찢어진 눈 초리, 눈 밑의 점까지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어설피게 서울말씨를 흉내 내고 있었지만 억센 경상도 사투리의 흔적은 어쩔 수 없었다. 스물일곱 여덟 정도였을까?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예상한 그대로였다.

"아가씨, 고향이 부산 ○○동이지요?"

"네, 어떻게 아세요?"

"성이 박 씨 아닌가요?"

"어머, 그걸 어떻게?"

내 예감대로 답이 나왔으므로 질문은 계속 그칠 것이 없었다.

"형제가 1남 5녀였지요?"

"아저씨, 도대체 어떻게 그걸……."

"……."

그곳에서 마시다 남은 술을 동료와 비운 뒤 자리를 떴다. 찬바람 부는 늦은 가을의 서울 거리에서 '부모'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난하기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매한가지였지만 어린 시절 이후 15년이 지난 모습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빠가 빠지게 짐승처럼 일하던 그 처녀의 부모님과 오빠가 떠올랐다. 부모가 열심히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식의 운명이 비참하게 흐르는 것이라면 힘들게 노력해서 사는 부모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 날이기도 했다.

이후 서울에서의 고단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인 도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매일 계속되었던 밤샘 근무로 심신이 피곤하던 삼십 대 초반의 어느 휴일이였다. 나른해서 소파에 앉아 졸고 있던 오후, 어머니는 밖에 누가 찾아왔으니 대문을 열어보라고 말씀하셨다. 대문을 여니 낯선 청년

부부가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아, 막내아들이시네. 우리를 몰라 보겠나?”

“글쎄요……. 누구신지요?”

그때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다.

“아주머니, 저희를 알아보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누구야!”

찾아온 그분들은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월세를 살았던 신혼부부였다. 부모님은 방 두 칸짜리 집에 한 칸을 세 놓았던 것인데, 당시의 신혼부부는 중후한 사십 대 중년 부부로 변해 있었다. 그분들은 중년이 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자 옛 자취를 찾기 위해 당시 우리가 살던 동네를 찾아온 것이다. 아랫동네를 헤매면서 30년 전 그 동네에 살던 우리 가족을 설명하니 다행히 이사한 우리 집을 아는 분이 위치를 알려줘 겨우 찾아왔다고 했다.

아내가 다과상을 마련하여 담소가 시작되자 아저씨가 말을 꺼냈다.

“우리가 살았던 저 아랫동네에서

집을 찾느라 두 시간을 헤매었습니다. 그곳이 그곳 같고 ……: 그런데 가갯집 주인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가르쳐 주었지요.”

“응, 그 동네에도 지금도 당시의 이 옷들이 많이 사니 그렇지.”

“그래, 아저씨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어찌겠어요? 명을 그렇게 타고 난 건데. 먼저 간 사람만 불쌍한 거지”

“아래 동네에서 소문을 들으니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셔 아드님들이 모두 다 잘 되었네요.”

“잘 되긴 뭘. 겨우 밥벌이나 하는 게지.”

아주머니가 말을 거들었다.

“당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지냈던 인정 넘치던 시절이었네요.”

그 중년 부부, 1960년대 중반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청운의 꿈을 안고 지리산 인근 마을에서 대도시 부산으로 왔으나 쉽게 자리를 잡지 못

했다. 게다가 부부의 단칸방에는 스무 살이 넘는 사동생까지 얹혀서 살고 있었는데, 일 년이 지나자 아기가 출산하게 되어, 네 평 남짓 좁은 방에 네 명이 거주하던 터였다. 당시 우리 집은 신발 공장 인근에 있었으므로 아저씨는 공장 정문 앞에 가게를 열어 짬뽕 장사를 시작했다. 부부의 생각처럼 장사가 잘되지 않아, 빵만드는 술을 움켜잡고 눈물을 자주 흘리셨고, 내 부모님은 그 부부를 감싸 안고 위로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후 부부는 몇 달 만에 빵집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신혼 시절 살던 집을 찾아온 것이다.

아저씨는 이후 외항선을 타게 되었고 선박 회사의 중견 간부로 자리 잡아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듯했다. 두 분 슬하의 자녀는 잘 자라주어서 모두 미국의 명문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귀땀했다. 아저씨는 감회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살아보니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던 그때가 참으로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던 아저씨·아주머니 두 분도 늘 생각했지요.”

그분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김순 선생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생각났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 매사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선생 글의 결론일 것이다. 비관적이기만 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요즘은 내가 자주하는 생각도 같다. 수필의 끝부분은 이렇게 매듭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행복은 반드시 부(富)와 일치(一致)하진 않는다.”는 말은 결코 진부(陳腐)한 일 편(一片)의 경구(警句)만은 아니다.”

11월 결연 대상자-송호영(가명)

운수 좋은 날

송호영(가명) 어르신은 동사무소를 통해 불우한 이웃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일을 합니다. 반찬 배달을 할 수 있는 날은 발걸음도 가볍고 어느새 콧노래까지 흘러나옵니다. 어르신께 반찬을 배달하는 날은 행운의 날입니다. 원래 반찬 배달은 봉사자들이 맡아서 활동하지만, 가끔 봉사자들이 급한 일정이 생겨 나오지 못한 날엔 어르신이 대신 배달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는 80세지만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위험물관리, 방화관리 교육도 수료했는데 내가 일할 곳은 없어.” 반찬 배달을 통해 버는 돈은 한 달 평균 약 5만 원 남짓 됩니다. “일이 있을 땐 20만 원 까지도 벌

지만 없을 땐 놀게 되니깐, 돈을 벌 수 있을 때 모아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 어르신은 21만 원을 내고 빚한 점 없는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도와주세요!

노인에 대한 여러 생각 중 하나는 [개미와 베짖이]의 베짖이처럼 젊어서 방탕하게 생활해서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한 노력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송호영 어르신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에서 가난한 집의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싫었던 어르신은 이른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고 그 결과 20세 때 고물상을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을 새워 일해도 힘들지가 않았어. 세상 돈이 다 내 돈인 것 같았거든. 큰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해.” 마진이 좋았던 고물상을 15년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포천에 건물을 지어서 목욕탕과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어르신의 가정이 기울기 시작한 건 큰아들의 이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혼을 하고 두 아들을 어르신께 맡긴 것입니다. 어르신은 손자들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서울에 집을 마련하여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자들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빛도 늘어났습니다. 목욕탕과 여관의 수익이 줄어들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계속 늘어났고 건물마저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3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많은 것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자식들과 연락도 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을 지키려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해. 그게 없으면 남자는 남자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게 이치인 거야.” 어르신은 그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며 그 누구도 탓할 게 못된다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송호영 어르신은 매월 기초연금 20만 원과 반찬 배달 활동을 통해 얻은 5만 원을 합쳐 총 25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한 평짜리 고시원방의 월세 21만 원을 내고 나면 4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본모임은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월세 21만 원을 1년간(252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길상사 경내,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욕탕

글 • 김광석(나고아대학 교수)

몇 달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이제야 조금 나아져 어제부터 수영하러 다니고 있다. 아직 완치는 아닌 듯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약에 의존하는 나날이다. 오늘은 조금 기분이 상쾌해서 아버지를 떠올려본다.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급적 우울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접어 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오늘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고이 간직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더듬어 본다.

언젠가 아버지에 대한 내 생각을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도 많지 않았던 아버지는 남과 다른 철학을 가지셨던 것을 가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하나 똑똑히, 그리고 더 깊이 나를

대로 느끼며 그 뜻을 기리며 산다.

아버지 스스로 우연히 발견하게 된 후, 암의 그들은 더욱 질게 드리우고 있었다. 시골에서 부모님만이 농사일하시면서 생활하는 터라 성격상 과로와 불면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암의 존재를 확인 후 약 한 달여 만에 팔순노인의 몸에 메스를 대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 아직 초기일 때 몸 안의 몹쓸 부위만 도려내면 건강한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팔순노인은 의사에게 희망의 보따리를 통째로 맡긴 채 스스로 수술대에 몸을 맡기신 것이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도 자식에 대한 배려였다.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

야 너희가 활발할 것이라고 이 못난 자식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가난에 찌들어 사는 큰아들이 못내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나는 당시 일본의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터라 아버지 곁에 있어 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다. 이즈음 일본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때라 여러 연구회 일정이라 일 년간의 행사를 기획하고 연구일정을 짜는 시기였지만,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줌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다.

4월 9일,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수술 시간이 예정돼 있어서 오후에 H 병원에 입원하기에 앞서 아침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동네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 아버지와 같이 목욕한 기억은 30년도 넘는 오래전의 일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에 다닐 때였던 것 같다. 돈부리(지명)에 있는

논의 잡초를 뽑아내고 모퉁이에 농사를 지으려고 파 놓은 작은 샘(웅덩이)에서 함께 먹 감은 이후 처음이었다. 목욕탕은 평일 아침이어서 한산했다. 나와 아버지 그리고 한두 사람밖에 없는 동네 목욕탕은 가늘어진 아버지의 용태를 더욱 가늘게 비추고 있었다. 보는 순간 가슴에 뜨거운 그 무엇이 꼭 차는 듯한 느낌이였다. 숨이 막힐 듯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아버지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팔순을 넘긴 노인이나 어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객지에서 그리고 타국에서 보내왔던 내 생의 3분의 2는 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생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때 논 모퉁이에 있는 웅덩이에서 본 그 모습 이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혼자 씻다가 결눈으로 보니 까맣게 뼈만 남아있는 듯한 모

습과 늘어진 피부는 내가 다가가기
를 거부하는 듯했다. 목욕을 같이
가지고 한 후 난, 난생처음 아버지
등을 밀어 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
에 들떠 나름대로 신이 나서 모시
고 왔건만 현실은 그렇게 꿈만 같
지는 않았다. 나의 그런 일생일대
의 큰 기대감은 송두리째 목욕탕
아저씨 뒤편으로 돌리고 나는 지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물
론 아버지 또한 모르긴 해도 자신
의 몸에 묻은 때를 남에게 맡긴 채
태연하게 누워 있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나와는 달리
아버지는 근면하고 검소하신 분이
라서 한 푼이라도 아끼시며 사시던
분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빈농의
만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어머니
와 함께 일찍 홀로 되신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팔 남매를 키워야 했
기에 자연스레 그렇게 습관처럼 몸
에 배어 버렸던 것일게다.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셨을
까. 그리고 그때 비친 큰아들의 모습
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늘 속만 썩히

며 한시도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
한 만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궁금
해진다.

연구실과 집안의 책장 가장자리에
는 아버지의 영정이 자리하고 있다.
늘 말을 건네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
고 있다. 때로는 하소연도 해보고 때
로는 환한 미소도 지어보고 때로는
눈물도 쏟아본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다.

하지만, 난 아버지께 약속드린 것
들을 내 생의 과업이라 생각하며 그
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또 내일도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꽃꽂이 살아갈 것이다. 늘 말없이 지
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곁에서…….

나는 맑고 향기로운가?

글 • 박현배(독자)

하염없이 내리는 가을비의 느낌과
소리를 마음에 담으며 어떤 에너지
에 이끌려 굽적여 본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만
내 마음의 비도 깊은 상념으로 승화
되어 내가 좋아하는 대금음악과 명
상음악이 어우러져 나만의 아우라
에 휩싸여 나도 모르게 이 글을 쓰
고 있다.

우리 집 거실의 탁자에는 항상 “맑
고 향기롭게”에서 매달 보내 주시는
귀한 책자가 매일 나를 반기고 있다.
거참! 생각할수록 고마운 일이다. 조
금은 초라해 보이는 얇은 책이지만
이 녀석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포근
하고 따뜻해진다. 마치 법정 스님이
그윽한 염화미소의 눈길로 내려다보
듯이……. 분량이 많지 않아 부담 없

이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말씀인 법정 스님의 글이 있고 맑고
향기로운 내용의 글들……. 이 세상
에서 “맑고 향기롭게”보다 맑고 향기
로운 단어와 문장은 없으리라! 마치
우주의 언어와 같이 나를 투명하게
반혀주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살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갖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지식으
로 버무려진 책이 나를 이리 따뜻하
게 감싸줄 수 있겠는가? 현재의 나
를 볼 수 있게 하고 나를 어루만지
는 것은 단연 “맑고 향기롭게” 책자
이다.

매달 나도 몰래 기다려지는 편지
이다. 지금의 집사람과 연애할 때도
이런 설레임이 있었는지 아련하다.

누가? 무엇이? 나를 현재의 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엄청난 충만감을 담고 있는 나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시간을 거슬러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고 있던 나의 삶에서 나라는 의미를 생각해 해준 작은 사건이 있었다.

2009년으로 기억되지만, 기독교 신자인 제자(당시 대학 겸임교수)가 나의 생일을 어떻게 알고 좋은 책을 선물하고 싶어 서점에 들러 둘러보던 중 '일기일회'라는 책이 우연히 눈에 들어와 나에게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되어 구입하게 되었다면서 보내온 두툼한 한 권의 책자. 어떻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불교의 색채가 짙은 책이 눈에 들어왔는지 지금도 의아하다. 물론 나도 당시에는 기독교 신자로서 세상사적인 피로움과 종교의 본질에 대한 사고로 방황하며 절 수련을 익히고 있던 때였다.

책의 저자가 <법정>인데 당시에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제자의 성의가 고마워 펼쳐든 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밤새 주옥같은 밝은 혜안의 글을 읽고 된장국과 같은 담백한 뒷맛을 느끼며 전율이 느껴졌다.

제자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법정이란 분이 누구인지 물었더니 무소유로 유명하신 스님이시란다. 곧바로 인터넷을 뒤져 그분이 퍼내신 모든 책을 구입하여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밑줄 치고 읽고 다시 별 표시를 하고 또다시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탐독했던 지난 시절... 그분이 퍼내신 모든 책을 남김없이 탐독하고 그분을 한번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즈음 그분이 영면하셨다는 떠들썩한 뉴스와 더불어 그분이 퍼낸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아뿔싸! 어떡하지? 그분이 남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는 사서 볼 수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잔머리를

굴린 결과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을 200권을 구입해서 내 생이 다할 때까지 내 주위의 따뜻한 분들에게 선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즉시 구입하고 나서의 안도의 마음과 더불어 든든한 마음이란!

허허, 거참!!! 그분이 이 세상에 없는 공허함과 귀한 지혜의 말씀이 단절된다는 안타까움에 나도 몰래 미친 듯이 출판된 모든 책을 5년에 걸쳐 정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는 독수리 타법으로 겨우 타자를 치는 수준이었는데, 덕분에 타자의 실력이 늘었다) 그분의 모든 책에서 나오는 차(茶)에 관한 것, 맑은 쇠귀들(詩와 思索), 법정의 사상을 뒷받침했던 선인들의 인용된 수많은 글들(말과 沈黙),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함축된 한자의 묶음들(思索과 沈黙), 인용한 경전의 글들(下心), 그리고 그분의 무소유를 바탕으로 한 100여 가지의 화두들(沈黙의 話頭), 마지막으로 법정이 토해냈던 주옥같은

은 말씀(법정선사의 眞言)을 타이틀 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제목은 임의로 지음)

이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값진 것이라 자부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법정 선사께서 일갈하신 100여 가지 "침묵의 화두"와 둘째로 "법정 선사의 진언"이다. 모두 300매 정도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고 받아보시는 분들이 좋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 좋은 것을 책으로 퍼내지 않겠느냐고 하신다. 법정 선사께서 말뱃을 거두고 가셨는데 하물며 그분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책으로 내다니 그분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어불성설이다. 하여 지금도 A4용지에 출력하여 지인들에게 드리고 있고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뿌듯한 것은 작년 11월 29일에 지금의 내가 대금이라는 악기를 불도록 지대한 영향을 주신 존

정하는 국악 음악 작곡자로 유명한 신 김영동 선생님의 강연이 길상사에서 있다 하여 전주에서 한걸음에 달려가 법정 선사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진영각에 그동안 그분의 책을 정리한 유인물을 바치고 김영동 선생님의 유익한 강연을 듣고 돌아왔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때의 감회가 새롭다. 또한, 불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모태 기독교 신자인 나의 집사람이 웬일인지 길상사로 법정 스님께 유인물을 바치러 간다고 하니 별 말없이 함께 나서준 것도 의아하다. 법정 스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법정 스님께 절을 올리는 동안 진영각의 마루턱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법정 스님의 “모든 현상은 그럴 만하니 생기고 나타난다”는 가르침이 뇌리에 맴돌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일면식도 없는 법정이 라는 분이 단순히 글을 통해서 나에게 이리도 깊이 자리하게 되었는가?

그렇다! 내가 이렇만하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럴만하니 그분의 위대한 지혜가 나에게 나타남이 아니겠는가?(인연생기 즉 인연법) 내 자랑하는 것 같아 많이 축스럽지만 그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이렇게 글로라도 풀어헤치니 너무도 후련한 마음 감출 수 없다.

나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법정의 책을 통해 알게 되었던 가장 사랑하는 마틴 부버의 시를 인용하며 이 글을 맺고 싶다.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대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어느 스님께 드리는 편지

글 • 김문환(미학박사)

그날은 몹시도 사람이 싫고, 문명이 싫고, 분위기에 질려 더욱 사람이 그리워 문득 비오는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콩죽처럼 질척이는 길을 내려 쪽문을 열고 들어서서 여기저기 물어 스님을 뵈기까지의 시간이 왜 그리 길기만 했는지요?

스님만큼이나 정갈한 방 안에 걸린 족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遠觀山有色 近聽水無色 (원관산 유색 근청수무색)

春去花在 人來鳥不驚 (춘거화재 인래조부경)

(멀리 보이는 산에는 빛깔이 있는데, 가까이 들리는 물에는 소리가 없네. 봄은 가도 꽃은 오히려 남고, 사

람이 다가오건만 새는 놀라지 않네.)

금강경(金剛經) 주석(註釋)에 있는 구절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깊은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 무연한 정지와 그 아아한 느낌은 날 별레 한 마리가 날아들어도 난리가 난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만난 것처럼 가슴을 발랑거리는 내겐 너무나 벽찬 것이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건설하고, 투쟁하고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고 싶을 때, 문득 그리워지면서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느껴지는 존재의 궁극이란 바로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일컬어 종교라 하고, 예술이라 하고, 문화라 하고, 사

것이 아닐까요? 수(數)와 힘의 노예가 된 우리들이 한결같은 사람으로서의 나로 거듭날 수 있는 영원한 산실(産室)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여 한편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우선순위의 앞에 놓고 모든 인간적 가치지향은 우선 먹고 살 좀 찢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배고픈데 철학은 무슨 말라빠진 개빠다귀 같은 소리냐”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고(孤高)를 뽐내고 개인의 구원과 말세를 부르짖으면서 실은 남의 소리나 대신 해주고 뒷전에서는 수를 헤아리면서 만족해 휘돌아가는 몰골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를 인연 맺어 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로부터, 불경을 비롯한 책 이야기로부터, 스님 방 안 문갑 위에 놓인 하얀 마리아상으로부터, 젊은 놈들의 소리굿으로부터, 선화(禪畵)로부터, 마침내 신화와 시로 넘어선 것은 이러한 몰골들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과 그 속에 한뭇 끼어 있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단군을 잉태한 꿈네를 향한 환웅의 목소리를 당신의 소리로 만든 이 남덕 님의 그 벽찬 모성이 우리의 잠자리를 신과 인간이 더불어 즐겨워하는 놀이마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내 사랑 꿈네야.

나는 하늘, 너는 땅

사랑은 주는 것, 오직 주는 것

마음을 주고 몸을 주라

박한 땅에는 거름을 주고

마른 땅에는 물을 주라

배고픈 자에게 먹이를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라.

고단한 자에게 쉴 곳을 주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라

사랑은 주는 것, 오직 주는 것

주고서 받기를 원치 말라.

하늘의 해와 달은 빛을 주고도 받지 않고
바람은 모든 생명에게 숨을 주고도 받지 않네

비는 부러서 땅을 적시고
구름은 가려서 그늘을 주건만
오직 줄 뿐, 반지를 얹네.

사랑은 주는 것, 오직 주는 것
사랑하되 가지지 말라.

세상 만물은 하늘에 속했을 뿐,
다 하나 하나의 삶, 온전한 삶이니
풀잎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꽃 한 송이도 꺾지 말라
다람쥐 한 마리도 잡지 말라

사랑은 살리는 것.
죽이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다.

세상을 온통 빨갱게 물들이겠다는 욕심이나, “빈대 밟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랴”는 민중(民衆)의 지혜는 아랑곳없이 열핵무기로 기상마

저, 천지(天地)의 조화(造化)마저 넘보게 된 인간의 교지(狡智) 앞에서, 그 바벨탑 앞에서, 떡으로, 인기(人氣)로, 권력으로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오른 아들의 죽음을 침묵으로 오열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그 정(情)이, 또한 애욕(愛慾)으로, 의욕상실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비겁으로, 공포로, 의혹으로, 분노로, 슬픔으로, 명예욕으로 호소하고 유혹하는 마아라 파피아스를 부끄럽게 한 부처님의 넉넉한 마음이 오늘처럼 갈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우주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가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고, 만물이 여래(如來)의 깨달음과 함께 깨달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다만 깨달은 자로 살고, 부활한 자로 사는 상상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새로운 신화를 마음으로, 눈짓으로, 이야기로, 펄펄 뛰는 몸짓으로 신나게 춤추는 일만이 있

을 뿐입니다.

돌아오는 아침 길 그 봄비는 버스 안에서 납작해지도록 밟힌 구두코가 하나도 짜증스럽지 않았음은 딱히 날씨가 개어서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방안에는 스님께 받아온 한 폭의 시화(詩畵)가 걸려 있습니다.

초의선사(杻衣禪師) 동다송(東茶頌)에 이르기를

차의 본성은
새 차와 묵은 차를 합하면
그 향기와 맛이
새로워진다 하더라.

또 쓰겠습니다.

(1975년 7월)

법정 스님 서신

■ 1975년 입추절

활자화된 편지*와 책** 잘 받았습
니다. 산에서 일하다 오느라고 회신
이 이렇게 늦어 버렸습니다. 다리를
다쳐 있으면서 옹긴 글임을 생각하
니 예술의 길 같은 걸 느끼게 됩니
다. 날이 서늘해지면 산에 들어가 차
분히 읽겠습니다.

입추(立秋)가 지나더니 벌써 초
가을 냄새가 풍깁니다. 아침저녁 바
람결이 맑고 풀벌레 소리들이 여름
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절후까지
도 한 때임을 생각하면 오늘의 이 막
막함도 얼마쯤은 위로가 됩니다. 광
복 30년이라지만 우리에게 빛도 해
방도 아직은 언지 못했습니다. 산에
서는 자연의 겸허와 질서가 있어 피
곤하지 않습니다. 산이 없다면 오늘
의 공기 속에서 질식하고 말았을 것
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짧게 살기 바랍니다.

입추절(立秋節)

다래헌에서



* 덕성여대(1975. 7. 8.)에 게재한 ‘어느 스님께 드리는 편지’를 말한다.

** L. 메모드 지음, 김문환 옮김, 『예술과 기술』(서울, 을유문화사, 1975)

- 김문환 시문집
‘눈이 맑은 아이’ 중에서

* 김문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미학을 전공한 철학박사이며 성공회대에서 배출한 첫 신학박사이기도 하다. 시문집 ‘눈이 맑은 아이’에는 1970년대 법정 스님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함께한 인연이야기와 법정 스님의 서신이 수록되었다. 현재는 절판이 되어 쉽게 구할 수 없는 도서이기에 한 구절 옮겨 담았다.

* (사)맑고 향기롭게와 인연 있는 분(회원, 길상사 신도, 봉사자 등)의 저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접 출간하신 서적, 발표하신 글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소중하게 담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모집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 clean94@daum.net

청소의 힘 - 마스다 미쓰히로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청소를 하는 이유는 지나친 욕망의 에너지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갖고 싶어’라는 욕심을 던지고, 필요 없는 고민처럼 우리 일상에 늘어진 잡동사니를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까지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남자가 펴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마스다 미쓰히로(40세)로 2007년 1월 한국에서도 출간된 《결례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전 청소력》과 《행복한 자장(磁場)을 만드는 힘 청소력》을 출간해 청소가 인생에 가져다주는 변화의 힘을 역설하고 있다.

마스다 미쓰히로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세상의 온갖 불행은 자신만 따라다닌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술로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방에서 술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날, 술병과 과자봉지로 엉망인 방에 가난하지만,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친구가 찾아 왔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는 마스다 미쓰히로에게 청소를 하자고 제안했고 방과 화장실을 돌이켜 깨끗하게 청소했다. 청소를 하는 직업으로 생활하지만,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친구의 청소 제안은 마스다 미쓰히로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청소를 하는 순간 마스다 미쓰히로

는 버린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버림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청소 전문회사를 차렸고 회사의 성장에 전력했으며, 자신이 경험한 청소의 힘을 책으로 출판해 세상 사람들에게 ‘청소의 마학’을 강의하고 다닌다. 그에게 청소의 힘은 인생을 바꾼 힘이고 인생을 살아갈 힘인 것이다.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할 줄 알아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 있고, 그런 다음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면 그것이 곧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청소는 어떤 이에게는 일상생활이고, 어떤 이에게는 살아가는 가치이



마스다 미쓰히로 (출처: 연합뉴스)

고,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무의미한 일이다. 셋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청소를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가길 원할 것이다. 마스다 미쓰히로를 통해 청소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생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 주었다.

청소를 하는 이유는 지나친 욕망의 에너지를 줄이는 데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부질없는 인생의 고민들을 집어던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는 버리는 것이 얻은 것이고 얻은 것이 버리는 것이라는 삶의 철학을 깨우친 철학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기본에 충실한 삶이 최선의 삶이란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깜짝 선물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백악관 옆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가끔 백악관 창가에서 학교 운동장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즐겨봤습니다.

어느 날, 창틈 사이로 아이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이 창밖을 내다보니, 한 소년이 몇 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고, 아이들은 그 소년을 가난뱅이라고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홀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깨끗한 복장과 구두를 반

질반질하게 닦고 등교하라고 했지만 소년의 구두는 너무 낡아서 광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링컨은 이 소년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소년의 집에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가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소년이 입을 멋진 새 옷과 새 구두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광채 나는 구두와 멋진 새 옷을 입고 등교했고, 친구들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 이달의 명언 >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몸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라.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네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라.

- 공자

* 출처 : 따뜻한 하루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시는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녹색나눔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진인노인요양원 나눔 행사 11월 9일 진행

본모임의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팀은 시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민요와 풍물공연을 준비하여 어르신들과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평소 생활관에서 지루한 일상을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자의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나눔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봉사팀은 10월 17일 '맑고 향기롭게와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을 기획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점심 식사 후 떡과 음료수, 안경닦이수건 각 2,00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시설 어르신에게 맑고 향기롭게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한결같이 참여하는 정기 자원활동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치 나눔 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

* **전화 말벗 자원활동**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활동(매주 월요일, 매월 첫째 일요일)**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 :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활동** :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들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인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프로그램입니다.

* **리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활동** :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장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생태 자원활동에 관심 있는 분 모집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중에서 자연활동, 환경운동, 생태적인 삶과 실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봉사팀을 구성하여,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판매, 홍보 활동과 생태현장을 찾아가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태팀을 구성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연 아카데미' : 27일 (일)오전 11시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3,4,17,1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0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맑고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 11월 24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7,14,21,28일)/매월 첫째 일요일(6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

당 정기 자원활동 및 나눔행사 진행 : 둘째 일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2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9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1,8,15,22,29일)/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번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아동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벗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사)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벗찬 김 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회차 기도가 8월 28일(일)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1월 5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대입수능 100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입재8월10일/회향11월17일)
- 장소 : 극락전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 11월 6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1월 12일(토) 오후 8시 00분 ~ 11월 13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1월 13일(일) 오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90일 관음기도 입재

- 입재 : 11월 14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11월 14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대입수능 100일기도 회향

- 일시 : 11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11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11월 23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1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법사스님은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천수다라니기도	11월 5일(토)	저녁 6시	극락전
대입수능 100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길상화 보살 기일	11월 6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1월 12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회향	11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 입재	11월 14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1월 14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대입수능기도 회향	11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1월 23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1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진각

진실한 기도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원초적인 침묵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다.

〈새들이 떠간 숲은 적막하다 : 침묵과 무소유의 달 中〉



2016년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함께 나눠요!

일시 : 11월 24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장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 길상사 주차장

나눔 대상자 : 홀로어르신, 장애인 1,000여 가구에 10kg씩 나눔

- 내용 : 11월 24일(목) - 배춧속 넣기, 포장
- 참여 대상 : 회원, 길상사 신도,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자(주부, 외국인, 학생 참여 가능), 군인, 단체 등 100여명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하고 따뜻한 복장
- 활동 혜택 : 점심 제공, 봉사활동인증서 발급(필요시)
- 봉사 참여 및 인원수를 미리 접수해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체, 단체 후원 및 참여도 기다립니다.
- 당일 김장 관계로 길상사 주차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봉사자 및 길상사 방문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전날(23일) 사전 준비 작업에도 일손이 필요합니다.



동참 및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Tel.02.741-4696 / www.clean94.or.kr

김장 후원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